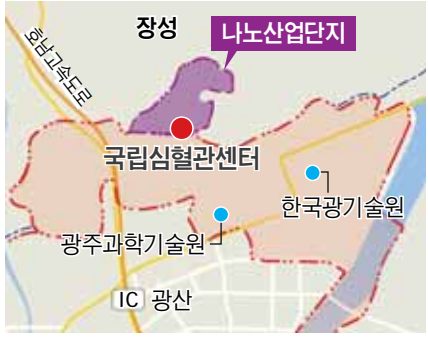


장성군 10년의 염원...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기대된다

■ 국립심혈관센터 예상 부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 3대 상생공약으로 채택된 데 이어 그동안 장성군과 함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에 힘을 보태온 이낙연 전남지사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오송과 대구에 들어서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산업이 낙후한 호남지역에도 의료 연구 클러스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성인 주요 사망 원인 10위권 내에 암(27.9%)에 이어 2·3·6·10위의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으로, 고령화 시대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빠른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정책화를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실무위원들과 함께 사업 당위성을 담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기획보고서' 작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선 4기와 민선 6기 장성군정을 이끌면서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유두석 장성군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역민들 모두가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설립이 현실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설립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전남대병원과 취지 공감 유치 계획 공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전남 상생 공약 채택 초고령 시대 필수 시설...균형발전 위해 전남에 설립해야 유두석 군수, 실무위 회의 등 정책 반영 힘 모으기로



■ 장성군, 전남대병원과 함께한 10년 유치 노력 결실 맺나 장성군의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노력은 유두석 현 장성군수가 민선 4기 군수를 맡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 군수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심뇌혈관계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전남대병원과 함께 33만500㎡(10만평)규모의 연구센터, 연구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심혈관센터 건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장성군은 당시 관련 연구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참여해 '심혈관계 의료기기 국제공동연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설립노력을 펼쳤으나, 이후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한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유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민선 6기 들어서다.

민선 6기 장성군수로 다시 돌아온 유두석 군수는 지난 2월 의료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위원회는 매 주 회의를 개최해 심혈관질환 관리현황, 국립심혈관센터 사업내용, 추진여건 등 각 분야별 자료를 모아 토의하면서 전략적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

마침내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유 군수는 "일본의 경우 이미 40년 전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

했으며, 우리나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성 설립을 추진해 왔다"면서 "장성은 특히 축령산 편백림 덕분에 전국에서 공기가 가장 맑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다 위치도 광주·전남·북권의 인접해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 노인은 물론 젊은층에도 빈발...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시급 장성군이 제안한 '국립심혈관센터'는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응급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의료 연구 기관으로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심·뇌혈관계 질환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는 연구병원과 연구센터, 예방 및 재활센터가 3개 핵심 기능을 하게 된다. 연구병원은 심혈관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한국형 심혈관 질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진료 지침서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연구센터는 환자들에게 나타난 병리상태를 연구하고, 치료법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예방 및 재활센터는 일반 국민과 환자들에게 유용한 예방법과 재활법을 개발해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노인에게 빈발하는 심뇌혈관계 질환은 현대인의 생활환경 변화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대표 노인성 질환인 심뇌혈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국립 의료기관의 설립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국가 균형발전 장성 나노산단 입지 여건 탁월 장성은 광주 R&D특구의 인프라와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다.

장성군은 전남과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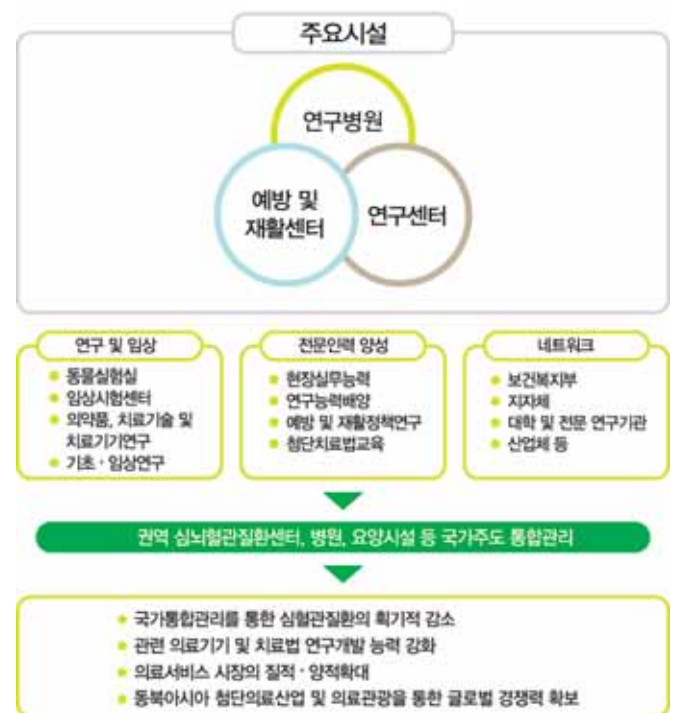
특히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는 나노산업단지(장성군 진면면, 남면 일대)주변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과학기술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광주연구개발특구도 함께 묶여 있어 첨단 의료기술과 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센터와 주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심뇌혈관 치료 관련 첨단



대표적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심·뇌혈관계 질환을 연구하고 응급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심혈관센터'의 장성 유치를 이끌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역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국립심혈관센터 시설 구성안 및 기능



의료 산업체들이 들어선다면 의료, 행정, 연구분야, 의료 산업분야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돼 새 정부가 핵심으로 내건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례의 할릴 공간으로 유명한 축령산 편백나무 숲이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심신 안정과 재활치료 효과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요양산업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신규 먹거리 창출도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노인성 질환인 심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연구기관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전남에 설립되어야 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호남권에 세워져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장성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 첨단의료단지 조성 현황



■ 2015년 사망 원인 (자료:통계청)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00m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1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문점, 대형전시장

2~5F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F 743㎡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